

##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

성경말씀: 시116:1-19

지난 3주 연달아 교회에 사망 소식, 초상을 치렀다. 임정석 모친, 김성기 부친, 이명자 어르신  
히9:27에 따라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모친(고령), 부친(뇌졸중 고생), 이명자 건강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길병원에 갔다가 결국 5시 운명, 박춘인 어르신 망연자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난주 같이 손잡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지난 15년을 가족처럼 지냄(목사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송내 시절부터 함께해 주심  
이번 주 내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아무 것도 없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죽음, 죽음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죽음을 이기려고

### 시편 116편

저자가 없다. 118편과 마찬가지로 예언 측면에서는 메시아 시편이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이 땅을 살다간 한 사람의 이야기, 매튜 헨리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시  
시편 23편 설명, 많은 어려움〇을 겪은 시인,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주의 집에 평안히 거하리로다.  
시편 116편 기자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15)로 표현함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

### 죽음의 역사

성경의 죽음(Death)은 분리를 가리킨다.

1.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창35:18), 첫째 죽음 아담의 죄로 인해 누구나 당한다.
2. 영원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계20:14-15; 유12)  
둘째 사망은 본인의 죄로 인한 것
3. 창조의 초기에는 죽음이 없었다.
4.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창2:17)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며 영적으로 죽음.  
930년을 산 뒤에 육체의 죽음(창5:3),
5. 인간의 운명, 5장 1-3절 설명, 그 이후로 누구나 죽는다. 언제까지 1000년 왕국
6. 부활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7.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 Time에서만 지금 죽음이 왕 노릇하고 있다.

### 마귀

아담의 타락의 원인: 사탄 마귀, 그는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계획을 망치려 함.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심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대립

###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오히려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계기로 삼고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자신의 본성에 참여하여 자기 아들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  
죄는 반드시 형벌 받아야 한다.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의 죽음, 무수한 희생물, 죄를 가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단 번에 영원토록 사람을 구속하실 계획 작성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스스로 죄가 되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자기 위에 스스로 짊어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심  
이것 외에는 사람을 구속할 다른 방안이 우주에 없음

히2:14-18 설명, 죽음이 무서워서 젊은 피로 수혈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영원히 산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 saint, 카톨릭 교회의 성자가 아니다. 사람의 작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로 거룩히 구분한 사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재림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두 모습을 본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아무 소망이 없으므로 우는 사람들, 울어도 못한다. 성도가 아니다.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소망이 있기에, 이명자 어르신, 영정의 얼굴이 웃고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이 성도다.

**성도의 삶에도 고통과 슬픔과 핍박이 닥친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맛 본다(3):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일들(병, 사고 등)  
다윗의 삶을 보라. 30세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박해가 말로 할 수 없었다(삼상20:3).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으로 인해 왕위를 찬탈당하고 맨발로 쫓겨나면 죽을 고생(욥14:1-2)

성도의 특권 기도(4, 1-2)

특히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사도 어떤 하나님인가(5-6)?

두려운 하나님 맞는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 관한 한 그렇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쌍 여기는 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궁핍을 베푸신다. 자식의 부모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시25:6-7)

하나님이 우리를 후하게 해 주셨다(7): 50년 전의 한국과 비교하라. 8년 전의 이 교회

지난 몇 십 년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죽을 뻔한 고비에서 건져주셨다(8).

이 땅의 문제(11):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롬3:10, 23).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약육강식의 세상  
그럼에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였다(10). 성도의 특징(1) 단순함, 아이처럼

1. 심지어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한다.
2. 죽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난다(잠24:16).
3. 세상이 핍박해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후4:16-5:1).
4. 지혜자 솔로몬의 말: 어리석은 자는 잔칫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사람이 왜 죽는가? 어떻게 살 수 없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소망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을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기때.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요11:25-26).
5. 왜 죽음이 무서운가?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명자 어르신, 전날 구정, 일가친척,  
어느 누구도 예사하지 못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것이 죽음의 공포이다.
6.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 명예, 선행 등 No!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15)**

인생의 다른 문제는 사람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을 외친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영원토록 안전하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귀중하다. 말3:16-17, 마귀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천사들이 옮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는 자식들이다(16).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12)?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한 보답의 행위가 나온다.

구원의 잔, 주의 이름(13):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순포, 전도, 예수님 찬양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 이행: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능, 시간, 재물 등 헌신  
특히 감사의 희생물(17),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